

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부사장

김운섭



“고가폰 전략 변함없다”

삼성전자는 향후 통신 업계 3대 메가 트렌드로 통방융합 ▲무선데이터의 보급 ▲기기 컨버전을 꼽았다.

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김운섭 부사장은 지난달 21일 국내 IT전시회인 'SEK2006'의 기조연설에서 '통방융합'과 '무선 데이터 보급', '기기 컨버전'을 통신업계 3대 메가 트렌드로 꼽고, 삼성전자 휴대폰의 프리미엄 전략 및 모바일 멀티미디어 리더로서의 비전을 공개했다.

이 날 기조연설에서 또 김 부사장은 '인류의 삶과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모바일 멀티미디어 리더' '멀티미디어 컨버

전스 리더십 유지', '차세대 통신 기술과 표준 선점' 그리고 '핵심역량 개발' 등 삼성전자 정보통신 비전도 함께 소개했다.

김 부사장은 특히 "이미 카메라와 MP3플레이어 기능이 멀티미디어 휴대폰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향후 모바일TV가 휴대폰의 기본기능이 될 것"이라며, "삼성전자는 지상파/위성DMB, DVB-H, 미디어플로 등 세계의 모든 모바일TV 기술과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모바일TV폰 시장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삼성전자의 차세대 휴대폰 전략에 대해서 김 부사장은 "3G와 3.5G 등 차세대 휴대폰에서도 다양한 초경량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"며 세계에서 가장 얇은 16.3mm 두께의 새 HSDPA폰 Z560을 한 예로 꼽았다.

삼성전자가 세계 표준 채택 및 전세계 확산에 매진하고 있는 와이브로와 관련, 김 부사장은 "삼성전자가 와이브로의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와이브로에 이미 4G 무선통신의 다양한 기술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"고 밝혔다.

이밖에도 김 부사장은 다가올 4G 시대 선점을 위한 '4G 포럼' 개최 등 다양한 삼성전자의 기술선도 노력을 소개했다.

김 부사장은 "앞으로도 삼성전자의 핵심역량인 차별화된 디자인과 고화소 카메라, 블루투스 등의 첨단 기능들을 겸비한 다양한 슬림폰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"이라며, "일부 국가에 전략적인 보급형 제품 공략이 있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휴대폰 제조업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는 최근 모토로라 노키아 등 경쟁업체들이 잇따라 중저가폰을 출시하는 데 비해 삼성전자는 '프리미엄 전략'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.

김 부사장은 끝으로 "유비쿼터스 시대에 휴대폰은 '올인원(all-in-one)' 단말기로서 '정보의 허브' 역할을 할 것"이라며, "삼성전자는 차세대 기술 선도를 통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를 실현시켜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 **K**

글 | 박영주 기자